

# 해킹 꼼짝마!... KT, 블록체인 적용 '5G 철통보안'

5G 블록체인 '기가체인' 공개  
IoT 보안솔루션 '기가스텔스'로  
고객 IP 숨겨 IoT 등 해킹 차단  
블록체인 기반 '착한페이'도 첫선

KT가 5세대(5G) 이동통신 특성인 초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5G 블록체인 서비스를 선보이며 초안전 솔루션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IoT) 시대 취약한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 플랫폼 '착한페이'를 공개했다.

KT는 16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세계 최초 5G 네트워크 블록체인인 '기가체인'을 공개하고 독자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IoT 보안 솔루션 '기가스텔스'를 선보였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IoT 기능이 탑재된 전자제품이 약 9000만대 가량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5G 시대에는 초연결성 특성을 통해 이 같은 IoT가 활성화



이동면(가운데) KT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사옥에서 네트워크 블록체인을 적용한 KT 기가체인(GiGA Chain) 기반의 지역화폐 플랫폼 '착한페이'를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보안이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만큼 보안이 풀리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가스텔스는 신원이 검증된 송신자에게만 IoT 단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가 보이는 기술이다. 검증되지

않은 익명의 송신자에게 IoT 단말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네트워크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

서영일 KT 블록체인비즈니스센터장은 "집 주소와 같은 개념의 IP가 공개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도둑이 침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안을 취약한 장비는 IP만

으로 고객 정보를 빼낼 수 있다"며 "기가스텔스를 적용하면 IP를 숨겨 해커가 공격대상을 찾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기가스텔스는 KT 기가 체인을 통해 사용자, 서버, IoT, 단말 등 통신에 관련된 모든 요소들에 대한 고유 ID를 저장한다. 또 스마트 계약을 통해 1회용 상호인증 접속토큰을 발행해 ID 기반의 통신 무결성을 보장한다.

KT는 5G 네트워크에 기가스텔스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업 간 거래(B2B) IoT 시장에 기가스텔스를 적용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시장 형성을 위한 교두보 마련에 나선다.

아울러 이날 KT는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환경과 통합 운영, 관제 기능을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형 블록체인 플랫폼인 '기가체인 바스(GiGA Chain BaaS)'의 공식 서비스 론칭을 알렸다.

블록체인 전문 개발인력이 없어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블록체인 노드(Node)를 구성하고, 블록체인의 핵심기술인

스마트 계약을 구현할 수 있다. 블록체인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별도의 서버 구축이 필요 없어 서비스 개발을 위한 비용,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KT는 포어링크, 레몬헬스케어 등 금융, 유통, 계약, 기업ICT, 보안 분야 50개 기업이 참여하는 '에코 얼라이언스'를 통해 국내 블록체인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KT는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 플랫폼 '착한페이'를 공개했다. 착한 페이는 모바일 앱 기반의 상품권 발행 및 QR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플랫폼이다.

실제 KT는 이달부터 김포시에서 통용되는 110억원 규모의 김포페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KT는 김포페이 및 제로페이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화폐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한 울산시, 하동군, 남해군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지역화폐 플랫폼을 확대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삼성전자, 英 기업 평판 '톱4' LG전자, 5G폰 'V50 씽큐' 국내 출시 연기

애플 중 최고... 2년 연속 '톱10'



삼성전자가 영국에서도 세계 최정상급 평판을 확인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평판 조사 업체 레퓨테이션 인스티튜트(RI)가 최근 공개한 '2019년 영국 평판 150대 기업' 보고서에서 4위에 랭크됐다.

조사는 올 초 영국에 거주하는 5만여 시민들에게 500개 이상 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제품과 서비스 혁신성, 업무환경, 사회적 책임 등을 평가받아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도 같은 조사에서 9위에 오른 바 있다. 2년 연속으로 톱 10을 지켜냈다. 이전에도 2017년을 제

외하고는 2014년 4위, 2015년 5위, 2016년 8위 등 높은 순위를 이어왔다.

아시아 기업 중에서는 가장 순위가 높았다. 일본 소니가 5위로 뒤를 바짝 따르는 가운데 캐논(44위), 혼다(59위) 등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이번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순위에 올랐다. 기업 평판 등급에서도 5단계 중 가장 높은 '최우수'를 획득해 큰 격차를 증명했다.

한편 1위는 레고였다. 그 뒤를 페이팔, 켈로그, 삼성전자, 소니 등이 이었다. /김재용 기자 juk@

"제품에 하자 문제 아니다"  
고객 만족 위해 완성도 집중

LG전자가 오는 19일 출시 예정이었던 자사의 첫 5G 스마트폰 'LG V50 씽큐(ThinQ)'의 국내 출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에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가 이뤄지긴 했지만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못해 고객들의 불만이 속출하는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LG전자는 5G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시를 미루고 5G 스마트폰 완성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LG전자는 현재 퀄컴 및 국내 이동통



LG V50 씽큐(ThinQ)

신사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프트웨어(SW)·하드웨어(HW), 네트워크등

에 이르는 5G 서비스 및 스마트폰 완성도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V50 씽큐 제품에 하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5G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완성도를 높여 차별화해보고자 출시일 연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V50 씽큐의 출시일을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최초로 5G 스마트폰을 출시한 삼성전자도 5G 성능 저하와 관련해 여러 차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이통사도 망 최적화 작업에 나서는데 개선이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구서윤기자 yuni2514@

삼성전자  
AS, 평일 7시까지 연장

스피드메이트  
오늘부터 타임세일 행사

삼성전자서비스가 서비스센터 운영 시간을 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서비스센터는 평일과 토요일 모두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했으나 상대적으로 수리 물량이 많은 평일에는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수리 물량이 적은 토요일에는 단축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휴대폰, 노트북 등의 제품을 점검받기 위해 방문하는 서비스센터는 토요일 9시부터 13시까지 4시간 운영하고 평일에는 9시부터 19시까지로 기존보다 1시간 연장 운영한다. 수리 엔지니어가 고객을 방문해서 에어컨, 냉장고 등 생활가전 제품을 점검하는 출장서비스의 운영시간은 토요일 9시부터 16시까지로 기존보다 2시간 단축한다. /구서윤 기자

스피드메이트가 '2019 한국 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 자동차관리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SK네트웍스가 16일 밝혔다.

K-BPI는 국내 주요 업체 브랜드 영향력을 소비자 조사로 지수화해 발표한다. 스피드메이트는 17년 연속으로 부문 1위에 올랐다.

스피드메이트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위 기념 온라인 타이어 타임세일 행사를 진행한다. 넥센타이어 CP672 17개 사이즈 제품을 온라인 최저가로 판매한다.

모든 구매 고객은 장착비와 휠얼라인먼트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착은 결제일 기준 3일차부터 지정 가능하다. /김재용 기자

LS전선, 베트남 전선공장 3.7배 확장... 10만t 생산 (연간)

하이퐁 LS비나서 증설 기념식  
현지 전선소재수요 절반 해결

LS전선 베트남 공장이 현지 전선 수요 절반을 만들게 됐다.

LS전선은 16일 베트남 하이퐁 생산법인 LS비나에서 전선 소재 공장 증설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S전선은 베트남 공장에서 연간 10만t(톤)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종전보다 3.7배 늘어난 양으로, 베트남 전선 소재 수요(20만톤)의 절반에 해당한다.

LS비나는 이번 공장 증설을 통해 소재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생산 물량은 자체적으로 소비하고, 남은 물량은 베트남과 주변 국가에 판매할



LS전선은 베트남 공장을 확장했다. LS전선 구자업 회장(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기념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LS전선

예정이다.

권영일 LS전선아시아 대표는 "작년 광케이블과 중전압(MV) 전선, 버스덕

트에 이어 이번에 전선 소재 설비의 투자를 완료함으로써 성장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